

## 15 장\_문화커뮤니티 금토

### 할머니, 할아버지 몸짓교실

노인을 대상으로 마임교육을 한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몸짓교실 프로그램을 제안 받았을 때 이 일의 경중을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일반 대학의 연극과 수업도 최소한 15~16 주를 꾸준히 맡아야 한다는 갑갑함으로 마다했던 나였는데 24 주라니, 그것도 춘천까지.

더욱이 수업의 대상자가 평균연령 80 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라고 하니 막막한 기분이었다. 그런데 어느새 ‘해보자’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내가 가진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솟으며 수락했다. 하지만 사실은 프로그램의 열개를 같이 고민한 노영아 선생님과 대한 든든한 믿음이 있었고, 몸 풀기를 맡아준 양미숙 선생님과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 가능한 결심이었다는 것을 고백한다.

성과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머느리처럼 어르신들 마음을 착착 짚어내고 맞출 줄 아는 노영아 선생과 막내머느리처럼 애교가 넘치는 양 선생님이 환상의 콤비를 이루며 수업 진행에 관한 열개를 짜는데 조력했고,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수업준비에 만반을 기했다.

우선 마임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 간단하고 재미있는 공연비디오도 준비하고 마음 느긋하게 명상도 하시라고 음악도 열심히 골랐다. 100%가 아니라 150%를 준비하면 된다는 각오로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기획자 측이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이것저것 염려하듯 인원과 강의시설 및 공간의 비좁음에 대해 의논할 때, 오히려 나는 여유가 있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무려면 어때요. 더우면 더운 대로 창문 열고 하구요. 좁으면 또 좁은 대로 서로 양보하며 하면 되죠! 재미있고 알차게만 풀어가면, 그래서 어르신들이 즐겁게 참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음... 인원이 열 분 정도면 더 알차고 집중적인 수업이 되겠지만, 열 분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나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다. 정말 그랬었다.

장소를 둘러보고 시기문제가 조율되고 나니, 드디어 몸짓교실의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해마다 5 월 말에 춘천에는 마임 휘모리가 몰아친다. 그렇게 한바탕 마임이 놀고 나간 기운이 채 가지지 않은 6 월 13 일이 내겐 잊을 수 없는 첫 시간이었다. 교실에 들어서는데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으악!”

통념상의 할머니님이 아니라 80, 90 대의 진짜 할머니들께서 결코 좁다고 할 수 없는 공간에 스물 여섯 분이나 빼곡히 앉아계신 것이었다. 어쨌거나 수업은 시작되었다. 노영아 선생님이 가벼운 몸 풀기부터 시도를 하는데 첫 동작에서부터 벌써 두 세 분을 제외한 나머지 어른들께서는 미동도 안 하시는 거다.

“누우세요.”

“에구구. 나는 허리가 아파 못 뉘! 어여 그냥 해.”

“엎드리세요.”

“아구구구구. 나는 무릎이 시원찮아서 못 해!”

“엎드려 손을 뒤로 하고 발목 잡아보세요.”

“이게 워찌 되여? 안돼, 이거는.”

“누워 발 드시고.”

“아구 간신히 누웠는데 또 뭘 하라구랴아! 못 허겠는디.”

“자, 손드세요!”

“나는 여, 여 팔이 병신이 되어 갖고 못 혀.”

“일어나세요.”

“아구 그러지 마. 나는 설수가 읊어!”

계속 진행하다가는 어르신들 몸살 나게 들볶는 나쁜 놈이 되지 싶었다.

**누가 누구한테 배우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준비해 간 재미있는 자료들을 보여드리면 팬찮겠지. 우선은 판토마임 실연을 해 보여드리며 간략한 설명으로 집중하시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공연자료를 보여드렸다. 그리고 공연자료를 보시는 내내 할머니들의 기색을 살폈다. 그런데 전혀 무표정이신 거다. 그날의 내 수업일지엔 빨간 펜으로 이렇게 써 있었다.

**재미있게 보실 거라 판단한 두 편의 판토마임 공연 비디오.**

**보실 때 전혀 반응 없음.**

하지만 수업 첫 날, 넘치도록 솔직한 반응을 보여주신 할머니들 덕분에 우리는 두 번째 수업부터는 오히려 수업의 방향과 진행에 대해 전혀 두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었다. 차라리 모두 함께 즐길 수 있었다. 마음을 비우고, 온 몸으로 부딪쳐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보자는 자세가 차라리 도움이 됐다.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우리 강사들이 할머니들의 삶의 체험과 연륜이 배인 몸짓을 공부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물지게 질, 길쌈, 솥불다림질, 다듬이질, 비석치기, 줄 놀이, 심지어는 혼인 첫날밤 모습까지도 우리의 몸짓으로는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진정성이 표현됐다. 시간이 갈수록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하는 서로들에게 감탄하고 즐거워하시는 모습과 ‘그게 아니고, 이리 해야지’ 하시며 훈수 두는 모습을 볼 땐, 시간이 어찌 가는지 모를 정도였다. 정말 올해 여름이 있었던가 싶게 더위도 모르고 지난 시간이었다. 월요일 밤이면 춘천 내려가는 다음 날 아침 생각에 설레어 잠들곤 하는 한 주 한 주가 이어졌다. ‘이번주는 어떻게 하실까?’ 정말 설렘이었다.

## 어머니

물론 고비도 있었다. 14 주차가 지나며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릴 무렵이었다. 흥미유발도 한계를 드러내고, 분위기도 예전만 못하여 강사들이 가슴앓이를 심하게 하게 됐다. 원인 분석을 해보니 매 시간 기대 이상으로 우리에게 보람을 느끼게 해주신 어르신들이 마임의 기본 개념을 알고 난 후에 조금은 따분해지신 것이었다. 이 지루한 시기에 대한 준비가 미처 마련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두 선생님과 함께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공연을 보여드리자는 것이었다. 군대식 판초를 입고 오래 전 내가 만든 작품을

보여드렸다. 그리고 한 여자의 일생을 표현한 마임 ‘어머니’를 보여드렸다.  
그러자 어르신들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건 이해를 못하겠는데 무슨 뜻이에요?”

썸통 더위 속의 소나기 같았다.

### 하실 수 있어요. 아픔을 뺏칠 수 있어요

우리들의 끊임없는 주문이 어르신들께 마인드 컨트롤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다. 처음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가 누군가 뒤에서 잡아주고 있다고 하면 용기를 내 힘껏 페달을 밟을 수 있는 것처럼 어르신들은 더욱 용기를 냈다.

“계단 올라갈 때 발로만 온 몸의 무게를 견디고 올라가면 힘들지만 누군가 허리띠를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가벼워요.”

그러자 어르신들은 거짓말처럼 말씀하셨다.

“선생님, 내가 걷는 게 가벼워요.”

### 우리는 마임이스트

복지관 선생님께서 “할머니들이 글썄, 수업시간 전, 후로 연습하고 그러세요.” 하고 귀띔해 주실 땐 정말 날아갈 것 같았다. 몸이 불편하셔서 걸음조차 힘든 분이 ‘둥지 트는 새 날개 짓’에서 말을 듣지 않던 팔이 반이나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았을 땐 눈물이 나는 걸 간신히 참았다. 그 아담한 교실에서 온갖 연이 하늘 높이 솟아 바람 속을 갈랐고, 배드민턴 공이 뽕뽕 날아다녔다.

한창 무더울 때는 수박에, 풋고추에, 시원한 물까지 몸짓 교실에는 없는데 없었다. 웃는 가면 쓰고 울고, 우는 가면 쓰고는 웃으시던 몸짓 속엔 더 부족한 게 없었다. 언젠가부터 “에이 이젠 답답해서 앉아서 못 하겠구먼. 서는 게 더 편해.” 하고 일어서시는 분들이 항상 절반을 넘어서게 됐다.

## 즐거운 마음 시간

“마임이 어떤 건지 듣도 못하다가 선생님들 덕분에 마임이 뭔지 알게 된 것, 고맙습니다.”

“몸이 부드러워지고 다리가 많이 풀어졌어요. 좋다는 거 가슴에 닿아요. 모든 것이 즐거웠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우리 때는 여자가 연 날려본 역사는 없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점점 추워지니까 몸이 안 따라줘서 그러치. 마음은 기쁜데 몸이 말을 안들어 속상해요.”

“열심히 가르쳐주는데 늙은이들이 몸이 안 따라가 줘서 그게 젤로 미안하지.”

“맞아, 미안해요. 미안해. 가르쳐준 대로 잘 못해서……”

마지막 시간에 한 분씩 주신, 분에 넘치는 말씀들이 가슴에 고스란히 남았다. 하나의 장르가 그저 예술로만 머물며 기능하는데 그치지 않고 생활과 심정에 스며들어 유쾌하고 상쾌해질 수 있다면, 삶에 벅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더욱 예술의 본질에 다가서는 게 아닐까.

그 소중한 깨달음을 내게 전해주신 스물 여섯 분 모든 어르신들께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

“고맙습니다. 더 노력해서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강원도 춘천 효자복지관 80대 주간보호 노인과 함께한 마임교육 '할머니, 할아버지 몸짓대화'

춘천 문화커뮤니티 금토